

제주도 여성의 보브스타일 선호도에 대한 연구

오명식* · 이재숙*** · 박장순***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 *** · ***

A Study on the Preferences of Bob Style in Womens of Jeju Island

Myoung-Sik Oh* · Jae-Sug Lee*** · Jang-Soon Park***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 *** · ***
(투고일: 2012년 08월 03일, 심사(수정일): 2012년 10월 04일, 게재확정일: 2012년 11월 20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the information for preferences of Bob styles in women among the 10-50 ages of Jeju island. In this study, 467 reliable survey were analyzed from questionnaires distributed from the March 1 to April 30 in 2011 and by using frequency and an x^2 -test. As the results, over 50% of the subjects showed as "some know" on Bob styles and the majority was known it through TV and public media. The length of the most preference on Bob styles in objects were middle length (39.8%, N·P=5 cm) and 10-20 ages preferred to Bob styles of long length but 40-50 ages preferred to Bob styles of short length. The most preferred Bob styles of 10 ages were straight possessing much rair (60° graduation + rair) and the most preferred Bob styles of 20 ages were straight possessing some rair (45° graduation), and then Bob styles of wave possessing some rair preferred to ≥ 30 ages (45° graduation). In the results of the most preferred side hair's Bob styles, 10 ages preferred to horizontal type and 20-50 ages preferred to Bob styles of A line. Ten and 20 ages preferred to straight type in wave changes and the most preferred wave changes of 30-40 ages were 30-50% wave, and then that of ≥ 50 ages were 50-70% wave. In the preference of front hair style, 10-20 ages preferred to straight type (horizontal type) and 30 ages preferred to slanting line (C type). Also, 40 ages preferred to slanting line with rair (slanting line of straight type) and then ≥ 50 ages preferred to vertical type (half lift up).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urvey shows can applied as the guidance of real evidence for ideal Bob styles' coordination.

Key Words: Preferences of Bob styles(보브스타일 선호도), Hair style Preference(헤어스타일 선호도), Women in Jeju(제주도 여성), Jeju island(제주도)

+Corresponding author: Jae-Sug Lee
Tel: +82-62-950-3656, Fax: +82-62-953-2218
E-mail: ljs2379@kwu.ac.kr

I. 서론

헤어스타일은 그 시대 복식 스타일과 함께 많은 변천을 해왔다¹⁾. 미적표현 수단인 헤어스타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든 그 시대에 따른 문화와 사상이 투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헤어스타일을 통해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표현수단이 된다²⁾. 인간의 외적인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헤어스타일은, 첫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기표현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³⁾. 동일한 사람이라도 헤어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과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지적되게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의상을 제외한 외모에서 헤어스타일이 전체 이미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여성에게 있어서 자신의 외모는 자신감, 행동, 인간관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⁶⁾.

보브스타일은 길이와 각도(층의 변화), 형태선 등 형태 변화 요인에 따라 다양한 헤어컷 스타일(hair cut style)이 창조되고 이미지화될 수 있는 스타일로서, 커트 방법 및 볼륨을 넣는 방법에 따라 10대에서 50대까지 응용범위가 매우 넓은 헤어스타일이다⁷⁾. 따라서 보브스타일은 모발의 길이, 층의 변화, 컬러, 웨이브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독립적 혹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표현됨으로써 다양한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연출 할 수

있다.

보브스타일에 대한 선행연구로써 김선영(2006)은 그래쥬에이션 헤어스타일 시술시 그 각도에 따라 경사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⁸⁾. 문금순(2007)은 보브스타일 색선의 형태와 시술 각도에 따라 보브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⁹⁾. 또한 김공삼(2007)은 보브헤어스타일의 형태를 분석하여 그 유형을 연구하여 보고하였으며¹⁰⁾ 이진화(2005)는 현대 보브헤어스타일에 관해서 연구하였다¹¹⁾. 그러나 이러한 보브스타일 커트에 관한 연구들은 많았지만, 제주도 여성의 보브스타일에 관한 선호도 조사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보브스타일 선호도를 세대별, 결혼 여부별, 직업별, 학력별로 분석하여, 연령에 적합한 보브스타일이나 보브스타일로의 헤어스타일을 새롭게 변화를 주고자할 때, 고객 만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브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로 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1년 2월 7일부터 2011년 2월 26일까지

일반인과 미용인 각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2011년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제주도에 거주하는 10대~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500부를 배포하여 467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보브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이효숙(2008)¹²⁾과 김영미(2010)¹³⁾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설문지 설정 기준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1년 2월 7일부터 2011년 2월 26일까지 미용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을 위한 전두부(앞머리), 측두부의 분류와 길이, 웨이브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앞머리의 구분을 김영미(2010)의 5가지 분류를 세분화하여 직선은 수평 형태, 곡선은 곡선 형태, 사선은 사선 형태와 C자 형태, 절선은 지그재그 형태, 수직선은 올림 형태와 반올림 형태로, 층사선은 직선적 사선 형태로 하였으며, 측두부(측면)의 형태선은 평행선은 수평 보브, 전대각선은 A라인 보브와 급격한 A라인 보브, 후대각선은 U라인 보브와 머쉬룸 보브로 구분하였다. 보브 길이의 설정 기준은 김영미(2010)의 길이 변화에 따른 선호도에서 솔리드, 그라쥬에이션에서는 N·P 5 cm 길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활용된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도 N·P 5 cm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웨이브 기준은 부분 헤어피스를 사용하였고, 전체 길이는 30 cm, 퍼머넌트 로드 5호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길이에서 4/4의 길이에 와인딩 할 경우 70% 이상 웨이브, 3/4의 길이에 와인딩 할 경우 50%~70% 웨이브, 2/4의 길이에 와인딩 할 경우 30~50% 웨이브, 1/4의 길이에 와인딩 할 경우 10~30% 웨이브, 0~10%는 스트레이트로 설정하였다. 형태선은 층이 없는 원랭스 스타일로, 층이 많은 레이어 형태의 보브스타일에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v. 1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대별, 결혼 유무별, 학력별, 직업별에 따라 헤어스타일 선호도, 보브스타일 선호도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인구 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10대 99명(21.2%), 20대 99명(21.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전문대·대학교 졸업 175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직업에 있어 주부가 13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27.8%를 차지하였고 회사원이 34명(7.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보브스타일에 대한 인지도

자신의 보브스타일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잘 알고 있다' 35명(7.5%), '알고 있다' 220명(47.1%)로 전체 54.6%가 보브스타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연령대별로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을 살펴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각각 58.6%, 47.7%, 43.2%, 34.1%로 나타나 연령이 어릴수록 보브스타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과 기혼에서 '알고 있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54.0%와 40.7%로 나타나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보브스타일에 대해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의 경우 '알고 있다'에 52.9%, 고졸의 경우 44.5%, 전문대나 대학교 졸업의 경우 48.0%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중졸의 경우가 보브스타일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브스타일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연령대별($p < .01$), 결혼여부 및

<Table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10대	99	21.2
	20대	99	21.2
	30대	86	18.4
	40대	95	20.3
	50대 이상	88	18.8
	합계	467	100.0
결혼 여부	미혼	224	48.0
	기혼	243	52.0
	합계	467	100.0
학력	중학교 졸업	102	21.8
	고등학교 졸업	164	35.1
	전문대·대학교 졸업	175	37.5
	대학원 재학·졸업	26	5.6
	합계	467	100.0
직업	중고등학생	103	22.1
	대학생	49	10.5
	주부	130	27.8
	전문직·기술직	69	14.8
	판매·서비스직	45	9.6
	회사원	34	7.3
	기타	37	7.9
	합계	467	100.0

<Table 2> 보브스타일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χ^2 (p)
연령대	10대	4(4.0)	7(7.1)	19(19.2)	58(58.6)	36.059** (.003)
	20대	3(3.0)	5(5.1)	29(29.3)	50(50.5)	
	30대	7(8.1)	8(9.3)	26(30.2)	41(47.7)	
	40대	7(7.4)	5(5.3)	37(38.9)	41(43.2)	
	50대 이상	3(3.4)	12(13.6)	40(45.5)	30(34.1)	
결혼 여부	미혼	11(4.9)	14(6.3)	54(24.1)	121(54.0)	20.891*** (.000)
	기혼	13(5.3)	23(9.5)	97(39.9)	99(40.7)	
학력	중학교 졸업	4(3.9)	8(7.8)	24(23.5)	54(52.9)	24.419* (.018)
	고등학교 졸업	8(4.9)	11(6.7)	62(37.8)	73(44.5)	
	전문대·대학교 졸업	7(4.0)	16(9.1)	59(33.7)	84(48.0)	
	대학원 재학·졸업	5(19.2)	2(7.7)	6(23.1)	9(34.6)	
직업	중고등학생	4(3.9)	8(7.8)	21(20.4)	58(56.3)	54.579*** (.000)
	대학생	2(4.1)	2(4.1)	12(24.5)	25(51.0)	
	주부	5(3.8)	12(9.2)	62(47.7)	48(36.9)	
	전문직·기술직	6(8.7)	4(5.8)	17(24.6)	35(50.7)	
	판매·서비스직	0(0)	3(6.7)	16(35.6)	23(51.1)	
	회사원	1(2.9)	3(8.8)	12(35.3)	17(50.0)	
	기타	6(16.2)	5(13.5)	11(29.7)	14(37.8)	
합계	24(5.1)	37(7.9)	151(32.3)	220(47.1)	35(7.5)	

*p<.05, **p<.01, ***p<.001

직업별(p<.001), 학력별(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보브스타일을 주로 접하는 경로

보브스타일을 주로 접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TV 및 방송매체’로 접하는 경우가 188명으로 40.3%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길거리에 서’ 20명(4.3%)으로 가장 낮았다(<Table 3>).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전 연령대에서 ‘TV 및 방송매체’로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따라서 Table 2와 3의 결과로부터 10대나 20대에서 보브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은, TV와 같은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유행을 인지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강동훈과 오세이(2009)¹⁴⁾는 여성의 헤

어스타일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별 개인적 특성에 따른 선호도 연구에서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얻는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보브스타일은 어린나이인 10대와 20대에서 인지도가 높았으며,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TV 및 방송매체를 통해 보브스타일을 주로 접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헤어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보브스타일 또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4. 보브스타일의 길이에 대한 선호도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길이를 분석한 결과 '중간 길이(N·P=5 cm)'가 166명(3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긴 길이(N·P=10 cm)' 129명(2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중간 길이(N·P=5 cm)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각 연령대 별로 가장 선호하는 길이는 50대 이상의 경우 55.7%가 짧은 길이(N·P=0 cm), 30대(38.4%)와

<Table 3> 보브스타일을 주로 접하는 경로

구분	TV 및 방송매체	잡지, 생활 일간지	가족, 친구	인터넷, 휴대폰	길거리 예서	미용실 예서	기타	X ² (p)
연령대	10대	40(40.4)	8(8.1)	23(23.2)	13(13.1)	3(3.0)	9(9.1)	16.371* (037)
	20대	41(41.4)	24(24.2)	11(11.1)	10(10.1)	2(2.0)	7(7.1)	
	30대	43(50.0)	15(17.4)	4(4.7)	3(3.5)	6(7.0)	10(11.6)	
	40대	31(32.6)	19(20.0)	7(7.4)	1(1.1)	6(6.3)	25(26.3)	
	50대 이상	33(37.5)	17(19.3)	4(4.5)	2(2.3)	3(3.4)	26(29.5)	
결혼 여부	미혼	92(41.1)	33(14.7)	34(15.2)	24(10.7)	9(4.0)	22(9.8)	1.051 (591)
	기혼	96(39.5)	50(20.6)	15(6.2)	5(2.1)	11(4.5)	55(22.6)	
학력	중학교 졸업	38(37.3)	10(9.8)	23(22.5)	12(11.8)	2(2.0)	13(12.7)	10.262 (.114)
	고등학교 졸업	60(36.6)	35(21.3)	14(8.5)	8(4.9)	10(6.1)	30(18.3)	
	전문대·대학교 졸업	79(45.1)	33(18.9)	10(5.7)	8(4.6)	7(4.0)	30(17.1)	
	대학원 재학·졸업	11(42.3)	5(19.2)	2(7.7)	1(3.8)	1(3.8)	4(15.4)	
직업	중고등학생	40(38.8)	8(7.8)	23(22.3)	13(12.6)	3(2.9)	13(12.6)	19.634 (.074)
	대학생	18(36.7)	12(24.5)	8(16.3)	6(12.2)	2(4.1)	1(2.0)	
	주부	53(40.8)	29(22.3)	7(5.4)	1(8)	7(5.4)	28(21.5)	
	전문직·기술직	30(43.5)	14(20.3)	2(2.9)	4(5.8)	3(4.3)	13(18.8)	
	판매·서비스직	14(31.1)	10(22.2)	5(11.1)	4(8.9)	2(4.4)	5(11.1)	
	회사원	17(50.0)	4(11.8)	1(2.9)	1(2.9)	2(5.9)	8(23.5)	
	기타	16(43.2)	6(16.2)	3(8.1)	0(0)	1(2.7)	9(24.3)	
합계	188(40.3)	83(17.8)	49(10.5)	29(6.2)	20(4.3)	77(16.5)	21(4.5)	

*p<.05

40대(47.4%)의 경우 중간 길이, 10대(47.5%)와 20대(34.3%)에서는 긴 길이(N·P=10 cm)를 나타냈다.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과 미혼의 경우 각각 짧은 길이(N·P=0 cm)와 긴 길이(N·P=10 cm)를 선호하였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의 경우 긴 길이(N·P=10 cm), 고졸과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의 경우 짧은 길이(N·P=0 cm)를 선호하는 경우가 각각 42.1%, 69.2%이었으며, 전문대·대학교 졸업의 경우 39.4%가 중간 길이(N·P=5 cm)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 중·고등학생의 경우 45.6%가 긴

길이(N·P=10 cm), 주부의 40.8%와 전문직, 기술직의 52.2%가 짧은 길이(N·P=0 cm), 대학생의 46.9%와 판매·서비스직의 42.2%, 회사원의 41.2%가 중간 길이(N·P=5 cm)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길이는 연령대(p<.001), 결혼 여부(p<.001), 학력(p<.001), 직업(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수정(2007)¹⁵⁾의 헤어컷 선호 길이의 결과에서는 20~30대는 ‘긴 길이’를 40~50대는 ‘중간 길이’, 50대 이상은 ‘짧은 길이’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

<Table 4>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길이

구분	짧은 길이 (N·P=0 cm)	중간 길이 (N·P=5 cm)	긴 길이 (N·P=10 cm)	χ^2 (p)	
연령대	10대	25(25.3)	27(27.3)	47(47.5)	47.048*** (.000)
	20대	33(33.3)	32(32.3)	34(34.3)	
	30대	31(36.0)	33(38.4)	22(25.6)	
	40대	34(35.8)	45(47.4)	16(16.8)	
	50대 이상	49(55.7)	29(33.0)	10(11.4)	
결혼 여부	미혼	69(30.8)	71(31.7)	84(37.5)	21.244*** (.000)
	기혼	103(42.4)	95(39.1)	45(18.5)	
학력	중학교 졸업	27(26.5)	27(26.5)	48(47.1)	39.460*** (.000)
	고등학교 졸업	69(42.1)	63(38.4)	32(19.5)	
	전문대·대학교 졸업	58(33.1)	69(39.4)	48(27.4)	
	대학원 재학·졸업	18(69.2)	7(26.9)	1(3.8)	
직업	중고등학생	28(27.2)	28(27.2)	47(45.6)	30.959** (.002)
	대학생	17(34.7)	23(46.9)	9(18.4)	
	주부	53(40.8)	47(36.2)	30(23.1)	
	전문직·기술직	36(52.2)	20(29.0)	13(18.8)	
	판매·서비스직	15(33.3)	19(42.2)	11(24.4)	
	회사원	10(29.4)	14(41.2)	10(29.4)	
	기타	13(35.1)	15(40.5)	9(24.3)	
합계	172(36.8)	166(35.5)	129(27.6)		

p<.01, *p<.001

이 많을수록 짧은 길이를 선호하는 것을 보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10~20대는 긴 길이, 30~40대는 중간 길이, 50대 이상은 짧은 길이로 나타나 보브스타일의 경우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짧은 길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보브스타일 층과 웨이브에 대한 선호도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층과 웨이브를 분석한 결과 ‘층이 조금 있는 웨이브 보브(45° 그레쥬레이션)’가 126명(2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층 없는 스트레이트 보브(원랭스 스

<Table 5>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층과 웨이브

구분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X ² (p)	
	층 없는 보브 (0° 원랭스)	층이 조금 있는 보브 (45° 그레쥬레이션)	층이 많은 보브 (60° 그레쥬레이션+레이어)	층 없는 보브 (0° 원랭스)	층이 조금 있는 보브 (45° 그레쥬레이션)	층이 많은 보브 (60° 그레쥬레이션+레이어)		
연령대	10대	20(20.2)	18(18.2)	23(23.2)	19(19.2)	18(18.2)	125.179*** (.000)	
	20대	10(10.1)	27(27.3)	20(20.2)	22(22.2)	19(19.2)		
	30대	5(5.8)	15(17.4)	20(23.3)	16(18.6)	24(27.9)		
	40대	3(3.2)	18(18.9)	17(17.9)	8(8.4)	41(43.2)		
	50대 이상	2(2.3)	8(9.1)	22(25.0)	4(4.5)	24(27.3)		28(31.8)
결혼 여부	미혼	30(13.4)	48(21.4)	50(22.3)	49(21.9)	42(18.8)	62.994*** (.000)	
	기혼	10(4.1)	38(15.6)	52(21.4)	20(8.2)	84(34.6)		39(16.0)
학력	중학교 졸업	17(16.7)	19(18.6)	22(21.6)	19(18.6)	22(21.6)	36.091** (.002)	
	고등학교 졸업	14(8.5)	24(14.6)	35(21.3)	18(11.0)	48(29.3)		25(15.2)
	전문대·대학교 졸업	7(4.0)	35(20.0)	40(22.9)	31(17.7)	50(28.6)		12(6.9)
	대학원 재학·졸업	2(7.7)	8(30.8)	5(19.2)	1(3.8)	6(23.1)		4(15.4)
직업	중고등학생	20(19.4)	18(17.5)	23(22.3)	19(18.4)	20(19.4)	96.661*** (.000)	
	대학생	8(16.3)	11(22.4)	11(22.4)	11(22.4)	8(16.3)		0(.0)
	주부	6(4.6)	14(10.8)	26(20.0)	13(10.0)	46(35.4)		25(19.2)
	전문직·기술직	0(.0)	17(24.6)	23(33.3)	10(14.5)	11(15.9)		8(11.6)
	판매·서비스직	2(4.4)	8(17.8)	8(17.8)	7(15.6)	18(40.0)		2(4.4)
	회사원	2(5.9)	12(35.3)	6(17.6)	6(17.6)	8(23.5)		0(.0)
기타	2(5.4)	6(16.2)	5(13.5)	3(8.1)	15(40.5)	6(16.2)		
합계	40(8.6)	86(18.4)	102(21.8)	69(14.8)	126(27.0)	44(9.4)		

p<.01, *p<.001

트레이트)'가 40명(8.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층이 조금 있는 웨이브 보브(45° 그레쥬에이션)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23.2%가 층이 많은 스트레이트 보브(60° 그레쥬에이션+레이어), 20대의 경우 27.3%가 층이 조금 있는 스트레이트 보브(45° 그레쥬에이션), 30대의 27.9%, 40대의 43.2%, 50대 이상의 27.3%가 층이 조금 있는 웨이브 보브(45° 그레쥬에이션 웨이브 보브)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 미혼의 경우 22.3%가 층이 많은 스트레이트 보브(60° 그레쥬에이션+레이어), 기혼의 경우 34.6%가 층이 조금 있는 웨이브 보브(45° 그레쥬에이션)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 중학교 졸업의 경우 21.6%가 층이 조금 있는 스트레이트 보브(45° 그레쥬에이션)나 층이 조금 있는 웨이브 보브(45° 그레쥬에이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의 29.3%와 전문·대학교 졸업의 28.8%가 층이 조금 있는 웨이브 보브(45° 그레쥬에이션), 대학원 재학·졸업의 경우 30.8%가 층이 조금 있는 스트레이트 보브(45° 그레쥬에이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중·고등학생의 22.3%와 전문직·기술직의 33.3%가 층이 많은 스트레이트 보브(60° 그레쥬에이션+레이어), 주부의 35.4%와 판매·서비스직의 40.0%의 경우 층이 조금 있는 웨이브 보브(45° 그레쥬에이션), 회사원의 경우 35.3%가 층이 조금 있는 스트레이트 보브(45° 그레쥬에이션)

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층과 웨이브에 따라서 연령대($p<.001$), 결혼 여부($p<.001$), 학력($p<.01$), 직업($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헤어스타일 선호도와 행동을 연령별로 3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이효숙과 박숙현(2006)¹⁶⁾의 연구 결과에서 20대는 층이 있는 중간 길이 생머리, 30대는 중간 길이 퍼머 머리를, 40대는 짧은 머리의 퍼머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보브스타일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6. 측면 형태선 대한 선호도

<Table 6>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측면 보브스타일을 분석한 결과이다. 'A라인 보브'가 229명(4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평 보브' 110명(23.6%), '머쉬룸 보브' 34명(7.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측면 보브스타일로는 A라인 보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 결혼 여부, 학력, 직업에 따라 가장 선호하는 측면 형태선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10대(47.5%)의 경우 수평 보브, 20대(44.4%), 30대(66.3%), 40대(58.9%), 50대 이상(54.5%)가 A라인 보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과 기혼 모두 A라인 보브를 가장 선호하였고, 중졸의 경우 44.1%가 수평 보브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나머지 학력에서는 A라인 보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 수평 보브를 가장 선호하는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에서 A라인

보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측면 보브스타일은 연령대, 결혼 여부, 학력,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위의 결과로부터 수평의 안정감으로 인하여 차분하고 귀여운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10대에서 수평의 보브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머지 연령대의 여성들은 A라인 보브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사선의 기울기로 인하여 백

(Side) 부분의 모발이 턱을 보완함으로 세련된 이미지가 강조되는 스타일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7. 보브스타일 웨이브 변화에 대한 선호도

<Table 7>은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웨이브 변화를 분석한 결과로써 ‘30~50%웨이브’가 167명(3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스

<Table 6> 가장 선호하는 측면 보브스타일

구분	수평 보브	U라인 보브	머쉬룸 보부	A라인 보브	금격한 A라인 보브	χ^2 (p)
연령대	10대	47(47.5)	7(7.1)	11(11.1)	24(24.2)	79.610*** (.000)
	20대	28(28.3)	6(6.1)	10(10.1)	44(44.4)	
	30대	14(16.3)	5(5.8)	2(2.3)	57(66.3)	
	40대	12(12.6)	10(10.5)	8(8.4)	56(58.9)	
	50대 이상	9(10.2)	7(8.0)	3(3.4)	48(54.5)	
결혼 여부	미혼	75(33.5)	14(6.3)	21(9.4)	89(39.7)	29.835*** (.000)
	기혼	35(14.4)	21(8.6)	13(5.3)	140(57.6)	
학력	중학교 졸업	45(44.1)	8(7.8)	10(9.8)	26(25.5)	49.756*** (.000)
	고등학교 졸업	27(16.5)	14(8.5)	11(6.7)	84(51.2)	
	전문대·대학교 졸업	35(20.0)	12(6.9)	12(6.9)	103(58.9)	
	대학원 재학·졸업	3(11.5)	1(3.8)	1(3.8)	16(61.5)	
직업	중고등학생	47(45.6)	8(7.8)	11(10.7)	25(24.3)	68.600*** (.000)
	대학생	10(20.4)	4(8.2)	6(12.2)	22(44.9)	
	주부	26(20.0)	9(6.9)	4(3.1)	71(54.6)	
	전문직·기술직	12(17.4)	6(8.7)	4(5.8)	38(55.1)	
	판매·서비스직	5(11.1)	3(6.7)	6(13.3)	24(53.3)	
	회사원	3(8.8)	1(2.9)	1(2.9)	28(82.4)	
	기타	7(18.9)	4(10.8)	2(5.4)	21(56.8)	
합계	110(23.6)	35(7.5)	34(7.3)	229(49.0)	59(12.6)	

*** $p < .001$

트레이트' 138명(29.6%), '10~30%웨이브' 80명(17.1%), '50~70%웨이브' 55명(11.9%), '80% 이상 웨이브' 27명(5.8%)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30~50%웨이브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있어 10대(69.7%), 20대(53.5%)에서는 스트레이트를 30대(53.5%)와 40대(54.7%)에서는 30~50%웨이브, 50대 이상의 경우 31.8%가 50~70%웨이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 미혼은 55.8%가 스트레이트를 기혼의 경우

43.6%가 30~50%웨이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스트레이트를 선호하는 중학교 졸업을 제외한 나머지 학력군에 30~50%웨이브를 선호하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스트레이트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나머지는 30~50% 웨이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웨이브와 연령대, 결혼 여부, 학력,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헤

<Table 7>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의 웨이브

구분	스트레이트	10~30% 웨이브	30~50% 웨이브	50~70% 웨이브	70% 이상 웨이브	X ² (p)
연령대	10대	69(69.7)	14(14.1)	14(14.1)	2(2.0)	298.908*** (.000)
	20대	53(53.5)	14(14.1)	32(32.3)	0(0)	
	30대	12(14.0)	19(22.1)	46(53.5)	6(7.1)	
	40대	2(2.1)	21(22.1)	52(54.7)	19(20.2)	
	50대 이상	2(2.3)	12(13.6)	23(26.1)	28(31.8)	
결혼 여부	미혼	125(55.8)	31(13.8)	61(27.2)	5(2.3)	164.297*** (.000)
	기혼	13(5.3)	49(20.2)	106(43.6)	50(20.7)	
학력	중학교 졸업	64(62.7)	15(14.7)	15(14.7)	5(5.0)	86.958*** (.000)
	고등학교 졸업	33(20.1)	32(19.5)	55(33.5)	29(17.7)	
	전문대·대학교 졸업	38(21.7)	29(16.6)	83(47.4)	18(10.4)	
	대학원 재학·졸업	3(11.5)	4(15.4)	14(53.8)	3(12.0)	
직업	중고등학생	69(67.0)	15(14.6)	15(14.6)	4(3.9)	191.752*** (.000)
	대학생	31(63.3)	4(8.2)	14(28.6)	0(0)	
	주부	5(3.8)	30(23.1)	49(37.7)	25(19.2)	
	전문직, 기술직	14(20.3)	12(17.4)	31(44.9)	10(14.7)	
	판매, 서비스직	6(13.3)	10(22.2)	22(48.9)	7(15.9)	
	회사원	9(26.5)	3(8.8)	17(50.0)	3(8.8)	
	기타	4(10.8)	6(16.2)	19(51.4)	6(16.7)	
합계	138(29.6)	80(17.1)	167(35.8)	55(11.9)	27(5.8)	

***p<.001

어스타일이 시각적 평가에 따른 이미지 분류 및 선호도 연구에서 직장과 가사를 겸하고 있는 30~40대의 경우, 짧고 웨이브가 있는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부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30~50% 웨이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위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8. 보브스타일의 앞머리에 대한 선호도

<Table 8>은 가장 선호하는 앞머리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로써 ‘수평 형태’가 108명(2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C자 형태’ 101명(21.6%), ‘직선적 사선 형태’ 73명(15.6%), ‘사선 형태’ 59명(12.6%), ‘반올림 형태’ 48명(10.3%), ‘곡선 형태’ 46명(9.9%), ‘지그재그 형태’ 17명(3.6%), ‘올림 형태’ 15명(3.2%) 순

<Table 8> 가장 선호하는 앞머리 스타일

구분	수평 형태	곡선 형태	C자 형태	사선 형태	직선적 사선 형태	지그재그 형태	올림 형태	반올림 형태	χ^2 (p)
연령대	10대	46(46.5)	19(19.2)	6(6.1)	19(19.2)	7(7.1)	1(1.0)	1(1.0)	231.507*** (.000)
	20대	32(32.3)	15(15.2)	18(18.2)	11(11.1)	10(10.1)	2(2.0)	4(4.0)	
	30대	18(20.9)	6(7.0)	32(37.2)	13(15.1)	13(15.1)	1(1.2)	1(1.2)	
	40대	9(9.5)	3(3.2)	24(25.3)	6(6.3)	37(38.9)	6(6.3)	1(1.1)	
	50대 이상	3(3.4)	3(3.4)	21(23.9)	10(11.4)	6(6.8)	7(8.0)	9(10.2)	
결혼 여부	미혼	79(35.3)	34(15.2)	34(15.2)	33(14.7)	26(11.6)	5(2.2)	2(0.9)	75.708*** (.000)
	기혼	29(11.9)	12(4.9)	67(27.6)	26(10.7)	47(19.3)	12(4.9)	13(5.3)	
학력	중학교 졸업	43(42.2)	17(16.7)	6(5.9)	18(17.6)	10(9.8)	3(2.9)	1(1.0)	80.630*** (.000)
	고등학교 졸업	26(15.9)	11(6.7)	33(20.1)	21(12.8)	29(17.7)	10(6.1)	7(4.3)	
	전문대·대학교 졸업	37(21.1)	17(9.7)	50(28.6)	19(10.9)	28(16.0)	3(1.7)	5(2.9)	
	대학원 재학·졸업	2(7.7)	1(3.8)	12(46.2)	1(3.8)	6(23.1)	1(3.8)	2(7.7)	
직업	중고등학생	46(44.7)	19(18.4)	8(7.8)	19(18.4)	7(6.8)	2(1.9)	1(1.0)	128.788*** (.000)
	대학생	14(28.6)	9(18.4)	7(14.3)	6(12.2)	5(10.2)	2(4.1)	1(2.0)	
	주부	15(11.5)	3(2.3)	38(29.2)	13(10.0)	23(17.7)	6(4.6)	5(3.8)	
	전문직·기술직	13(18.8)	6(8.7)	20(29.0)	8(11.6)	13(18.8)	2(2.9)	2(2.9)	
	판매·서비스직	11(24.4)	5(11.1)	11(24.4)	7(15.6)	7(15.6)	1(2.2)	2(4.4)	
	회사원	7(20.6)	4(11.8)	6(17.6)	3(8.8)	9(26.5)	2(5.9)	2(5.9)	
	기타	2(5.4)	0(0)	11(29.7)	3(8.1)	9(24.3)	2(5.4)	2(5.4)	
합계	108(23.1)	46(9.9)	101(21.6)	59(12.6)	73(15.6)	17(3.6)	15(3.2)	48(10.3)	

***p<.001

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대부분 수평 형태의 앞머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로 10대의 46.5%와 20대의 32.3%는 수평 형태, 30대의 37.2%는 C자 형태, 40대의 38.9%는 직선적사선 형태, 50대 이상의 33.0%는 반올림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의 경우 35.3%가 수평 형태, 기혼의 경우 27.6%가 C자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에 따라서는 중학교 졸업의 경우 42.2%가 수평 형태, 나머지에서는 C자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44.7%와 28.6%는 수평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부(29.2%)와 전문직·기술직(29.0%)은 C자 형태, 판매·서비스직(24.4%)은 수평 형태나 C자 형태, 회사원의 26.5%는 직선적 사선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앞머리 스타일과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 결혼 여부, 학력,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IV. 결론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보브스타일 선호도를 연령대, 결혼 여부, 학력, 직업별로 조사하였고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조사 결과 467명중 10대 21.2%, 20대 21.2%, 30대 18.4%, 40대 20.3%, 50대 18.8%로 나타났고 기혼이 52.0%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 학력은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자가 37.5%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주부가 27.8%로 가장 많았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보브스타일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 '조금 알고 있다'가 32.3%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54.6%가 보브스타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대부분은 TV 및 방송매체로 보브스타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장 선호하는 보브스타일 길이로는 중간 길이(N·P=5 cm)가 39.8%였으며, 10~20대는 긴 길이의 보브를 선호한 반면 40~50대는 짧은 길이의 보브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보브스타일 층의 변화에서는 10대의 경우 층이 많은 '스트레이트 보브'(60° 그래쥬에이션+레이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의 경우 '층이 조금 있는 스트레이트 보브'(45° 그래쥬에이션), 30대 이상의 경우 '층이 조금 있는 웨이브 보브'(45° 그래쥬에이션)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측두부(측면)스타일은 10대는 평행선(수평 보브)형태를 20대~50대 이상의 경우 전대각(A라인 보브)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웨이브 변화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10대나 20대의 경우 '스트레이트', 30~40대의 경우 '30~50%웨이브', 50대 이상의 경우 '50~

70%웨이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전두부(앞머리) 선호도에서는 10~20대의 경우 직선(수평)형태, 30대의 경우 사선(C자)형태, 40대의 경우 층진 사선(직선적 사선)형태, 50대 이상의 경우 수직선(반올림)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선택 이유로는 '얼굴형을 커버하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보보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대, 결혼 여부, 학력, 직업별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제주지역 여성들은 보보스타일에 대해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짧은 스타일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각 연령에 적합한 보보스타일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세대의 선호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제안과 적용으로 고객 만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K C I

참고문헌

- 1) 권미윤(2005) 20세기 후반 하위문화에 나타난 저항적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vol.6. no.1, pp. 17-33.
- 2) 최정명(2004) 여대생들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vol.5. no.1, pp. 21-34.
- 3) 노영희, 노효경(2002) 헤어 컬러링이 얼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vol.3. no.3, pp. 207-217.
- 4) Lim, I. S. & Lee, S. Y. (2004). Study on fusion image in hairstyle. *J. Kor. Soc. Beauty Art. 5(1)*, pp. 83-97.
- 5) Son, J. Y. & Kim, H. S. (2011). Image perception on face shape and hair style depending on perceivers' characteristics. *J. Kor. Soc. Beauty Art. 12(4)*, pp. 107-124.
- 6) 김혜란(2007). 중년여성의 신체적 특성이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두피모발미용학회지*, vol.3. no.2, pp. 175-197.
- 7) 정임숙(2002).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선영(2006). 그래쥬에이션 헤어스타일 시술 각도와 경사선의 관한 연구. *미용교육포럼 학회지*, vol.6. no.1, pp. 15-32.
- 9) 문금순(2007). 섹션의 형태와 시술 각도에 따른 보브스타일(Bob style) 변형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공삼(2007). 보브헤어스타일의 형태분석과 유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이진화(2005). 현대 보브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 2001~2004년 패션 컬렉션 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효숙(2008). 헤어스타일이 시각적 평가에 따른 이미지 분류 및 선호도.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김영미(2010). 헤어디자이너의 커트 스타일 선호도 분석을 통한 헤어스타일 연구. 호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강동훈, 오세이. (2009). 여성의 헤어스타일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vol.15. no.2, pp. 429-439
- 15) 최수정(2007). 창원시 여성의 헤어스타일리실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이효숙, 박숙현(2006). 헤어스타일 선호도와 행동에 관한 연령별 비교.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12. no.1, pp. 167-176.